

1. 이 책의 특징과 의의(1) - 전근대와 근대와의 연속성

- 한국 고도경제성장(1960~1997)의 역사적 기원은 어디인가? 박정희시기의 수출주도전략인가, 식민지시기인가, 아니면 전통시대인가?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이 문제를 양자택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대(上古-中古-近古)부터 식민지시기,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를 ‘연속성’(중첩적 연속성?)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.
-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고도성장의 직접적 계기는 일제에 의해 도입된 ‘시장경제체제’이지만 시장경제체제가 훌륭하게 정착되고 고도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한 역사적 배경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 한반도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‘시장체제 친화적’인 문화와 환경이 있었음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.

→ 외부로부터 시장경제체제의 이식+ 전통시대로부터 내려온 문화와 환경-> 고도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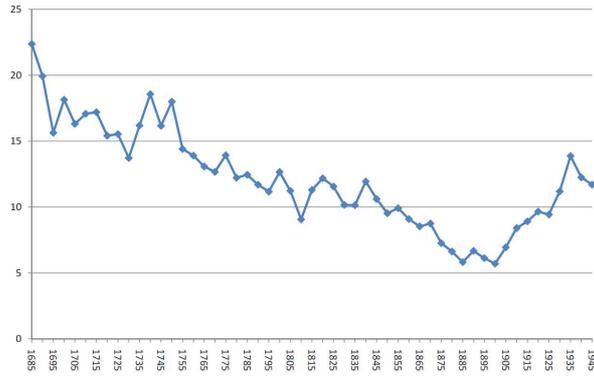
2. 이 책의 특징과 의의(2) - 시기구분

- 그렇다면 오랫동안 진화해온 ‘시장경제체제 친화적’인 문화와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. 이에 대해 이 책은 가족 제도와 재산권에 특히 주목.
- 한국의 가족제도는 烟(3-7세기)→丁(8-14세기)→戶(15-19세기)→家族(20세기)으로 변해왔으며, 토지의 재산권은 오랜 기간 王土사상에 입각한 국가적 토지소유제를 대신하여 15세기 이후부터 사적 소유권이 성립, 발달(단, 산림 등은 일제시기에 성립)
- 세대공동체인 丁戶로부터 분화된 조선 시대의 戶는 “직계 가족과 근접한” 소규모 가족=소농경제. 이 소농 경제는 근면성과 교육을 강조하고, 또한 소농경제의 성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도 관련. 이들은 모두 시장친화적인제도이면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.

3. 이 책의 특징과 의의(3) - 조선사회붕괴론과 식민지근대화론

- 정체, 쇠퇴, 위기로서의 19세기 조선 vs 개항 식민통치 이후의 “발전 한국”
- 필자는 19세기의 정체 또는 19세기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로 1)수도작 지대량의 장기 하락, 2)19세기 후반 이후 시장통합의 붕괴, 3)생활수준의 하락을 제시.

1) 수도권 두락당 지대량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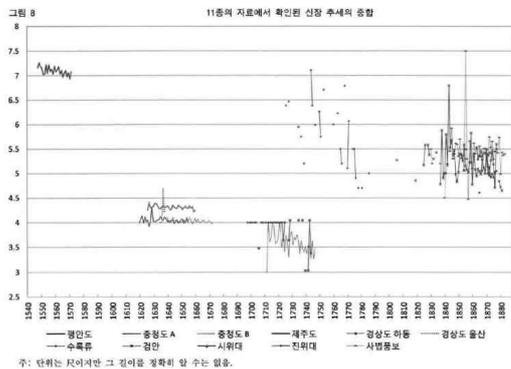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두락당 지대량의 장기추세(斗, 租)

2) 19세기 후반 시장통합의 붕괴

미가의 1차차분간 상관계수

		남원			
영암	1744-1764				
	1781-1815				
	1819-1854	0.087	9		
	1855-1882	0.523	24	**	
	1883-1910	0.786	17	**	
	1911-1932	0.587	8		
해남	1744-1764				
	1781-1815				
	1819-1854	0.151	6	0.889	31 **
	1855-1882	0.696	21 **	0.693	29 **
	1883-1910	0.801	7 *	0.203	6
	1911-1932				

3) 신장의 추세를 본 생활수준의 하락



주: 단위는 치이지만 그 길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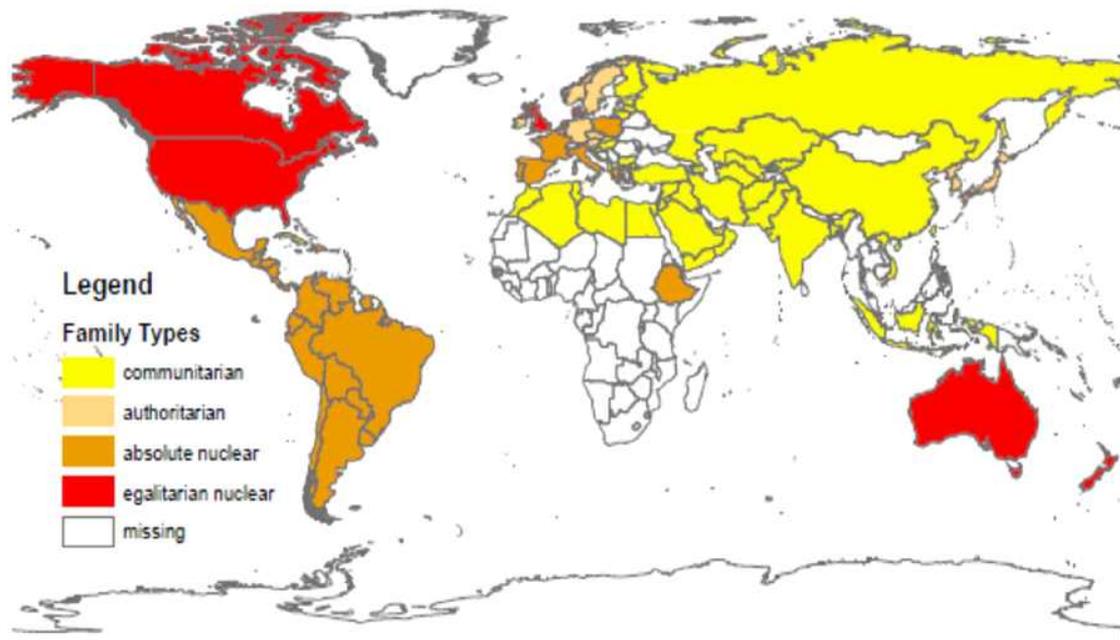
4. 토론

1. 가족제도와 근대경제성장과의 관계

■ 개념의 혼란: ‘소농경제의 성숙’, ‘자립적 소농경제의 확립’

■ 소가족 혹은 소농경제와 근대경제성장과의 관계, 나아가 가족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인정하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직계가족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가족제도라고 볼 수 있는가? 필자도 인용한 토드에 따르면, 조선시대 가족제도는 남미보다도 낮은 ‘경제 성장친화적인 가족제도’를 갖고 있었다.

Figure 7
Family Structures, Todd's classification



Source: Profeta and Galasso (2012)

2. 전근대와 근대와의 연속성

- 소농경제의 발달 외에 전근대발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고,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양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음.
- 한국은 기술수준, 국가역사지수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, 이는 신석기 혁명시기와 밀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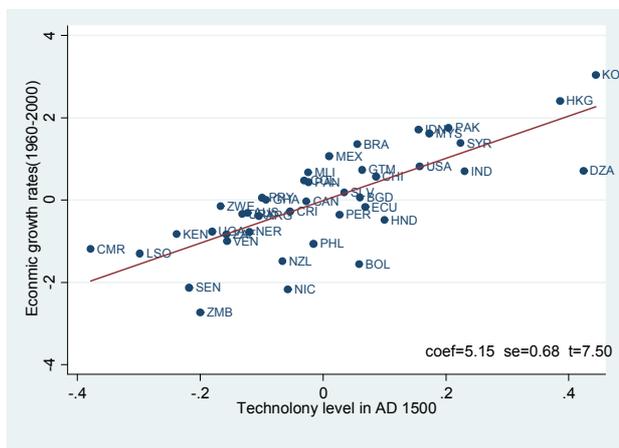
표1 구석민지국가의 전근대발전 지표

	평균	표준편차	최대값	최소값	한국	순위	표분수
경제성장률(%) 1960-2000	1.502	1.52	5.78	-1.53	5.78	1	64
초기조건							
gdp per capita(\$) 1960	2814	2679	12413	422	1570	40	64
초등학교취학률(%) 1960	66.65	32.01	118	5	94	30	96
1인당 교육년수(년) 1960	2.98	2.31	9.56	0.17	3.23	19	53
토지지니계수 1960년대초	68.7	15.47	92.3	33.85	33.85	42	42
중위소득층비율 1960	0.33	0.05	0.41	0.22	0.41	1	47
아텔만모리스개발지수 1960년대초	-0.02	0.98	1.91	-1.86	0.85	12	64
전근대발전지표							
신석기혁명(년) B.P. (BP=2000)	3860	2351	10500	362	4500	26	103
기술수준 AD 1500	0.34	0.26	0.88	0	0.85	2	76
log(인구밀도) AD 1500	0.73	1.61	4.61	-3.83	3.70	3	90
국가역사지수 (1950년기준) *1/100	3.20	2.05	8.18	1.88	8.18	1	94
도시화율(%) AD 1500	2.62	4.09	21	0	no		65
식민통치지표							
이주자비중(%) 1900	11.71	23.22	100	0	1.8	43	101
통치기간(년)	157.68	127.31	513	12	35	101	107
독립년도(년)	1930	57	1776	1997	1945	34	107

주: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는 PPP로 환산 1997년 US 달러 기준

자료: 각 나라별 신석기혁명 시기는 Putterman with Trainor (2006), "Agricultural Transition Year Country Data Set," http://www.econ.brown.edu/fac/Louis_Putterman. 기술수준은 Comin et al(2010), "Was the Wealth of Nations Determined in 1000BC?," *American Economic Journal: Macroeconomics* 2(3): 65-97. 인구밀도는 Acemoglu, Johnson and. Robinson(2002), "Reversal of Fortune: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," *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* 117(4): 1231-1294. 국가역사지수는 Putterman, Louis(2007), "State Antiquity Index (Statehist) Data Set," http://www.econ.brown.edu/fac/Louis_Putterman

3. AD.1500년 기술수준과 경제성장률(1960-2000)의 관계.



4. 필자는 위 표의 전근대발전 지표에 의문을 표시하나,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,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추출된 각 지표가 우연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. 그리고 사실 이 지표를 사용한 논문들은 AER 등 탑 저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(예컨대 Ashraf and Galor, 2011. “Dynamics and Stagnation in the Malthusian Epoch,” American Economic Revie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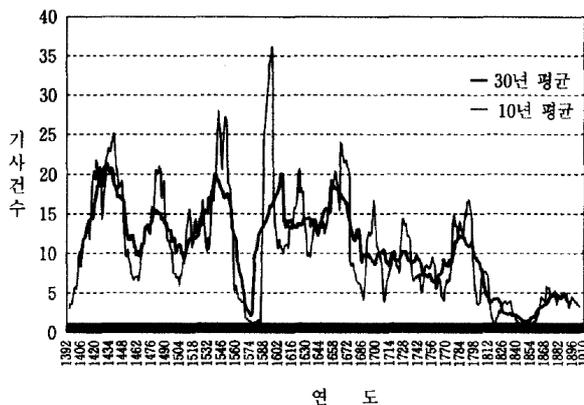
표2 전근대발전지표와 유럽이주자 비중간의 상관계수

	신석기혁명시기	기술수준 AD 1500	인구밀도 AD 1500	국가역사지수
신석기혁명 시기	1			
기술수준 1500	0.72	1		
인구밀도 1500	0.62	0.71	1	
국가역사지수	0.67	0.74	0.67	1
Biogeography	0.72	0.86	0.66	0.65
log(이주자비중)	-0.33	-0.50	-0.58	-0.27

주: 전근대지표간의 상관계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샘플은 77개 국가. log(이주자비중)과 전근대발전지표간의 상관계수는 구식민지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상관계수이다. 각 샘플 국가수는 신석기혁명 99, 기술수준 74, 인구밀도 94, 국가역사지수 90개이다. 각 변수의 출전과 설명은 <부록2> 참조.

5. 19세기의 정체 또는 19세기 위기론은 사실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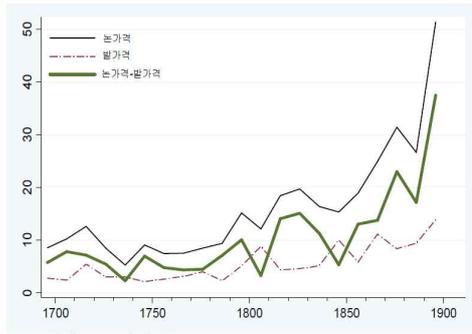
1) 수도작 생산성의 장기 하락?



자료: CD 『朝鮮王朝實錄』, <부도 1>과 <부표 1> 참조.
그림 1 기근의 추세(1392-1910년)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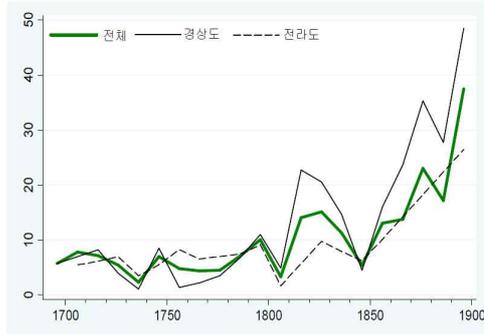
→이 그림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와 기근은 크게 줄어들었다. 생산성이 1/4수준까지 하락하는 동안, 기근이 줄어들 수 있는가?

그림 9 논가격과 밭가격의 추이(전국)



주: 단위는 두락당 兩.
 자료: 이정수 김재호(2011), p.209.

그림 10 논가격과 밭가격의 추이(경상도와 전라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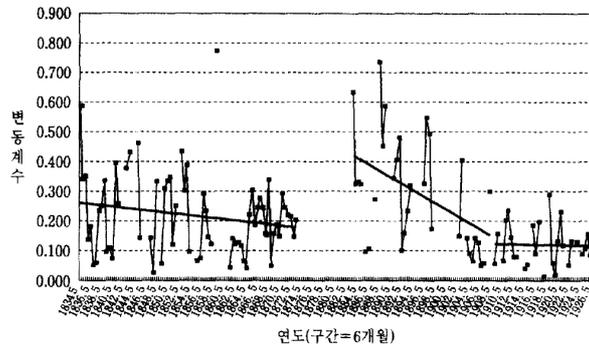
주: 논가격에서 밭가격을 뺀 값의 추이
 자료: 그림 9와 같음.

→ 위 그림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와 밭 가격 대비 논 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.

2) 시장의 분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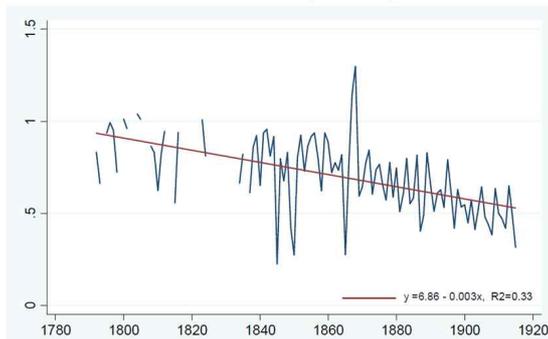
		남원			
영암	1744-1764				
	1781-1815				
	1819-1854	0.087	9		
	1855-1882	0.523	24 **		
	1883-1910	0.786	17 **		
	1911-1932	0.587	8		
해남	1744-1764				
	1781-1815				
	1819-1854	0.151	6	0.889	31 **
	1855-1882	0.696	21 **	0.693	29 **
	1883-1910	0.801	7 *	0.203	6
	1911-1932				

→ 필자가 고립된 내륙부라고 생각한 남원은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, 19세기 중엽 시장 통합은 오히려 더 강화됨.



주: 연도에서 상·하반기 구분은 0과 5로 표기함.
 자료: 李榮薰 全成昊, 『米價史 資料의 現況과 解説』, 136-145면.
 그림 5 시장통합의 추이(1834-1928년): 영암-예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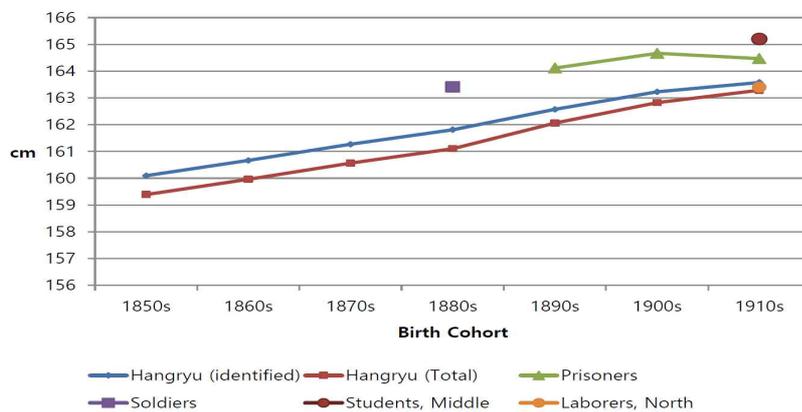
그림 5 변동계수 추이(년간 기준)



→곡물시장의 통합은 19세기 중엽 붕괴된 적이 없으며, 오히려 19세기 내내 확대되었다.

3) 생활수준의 하락?

Figure 5-1 The Height of Male Hangryu Deceased compared with other statistics: Birth Cohorts from the 1850s to the 1910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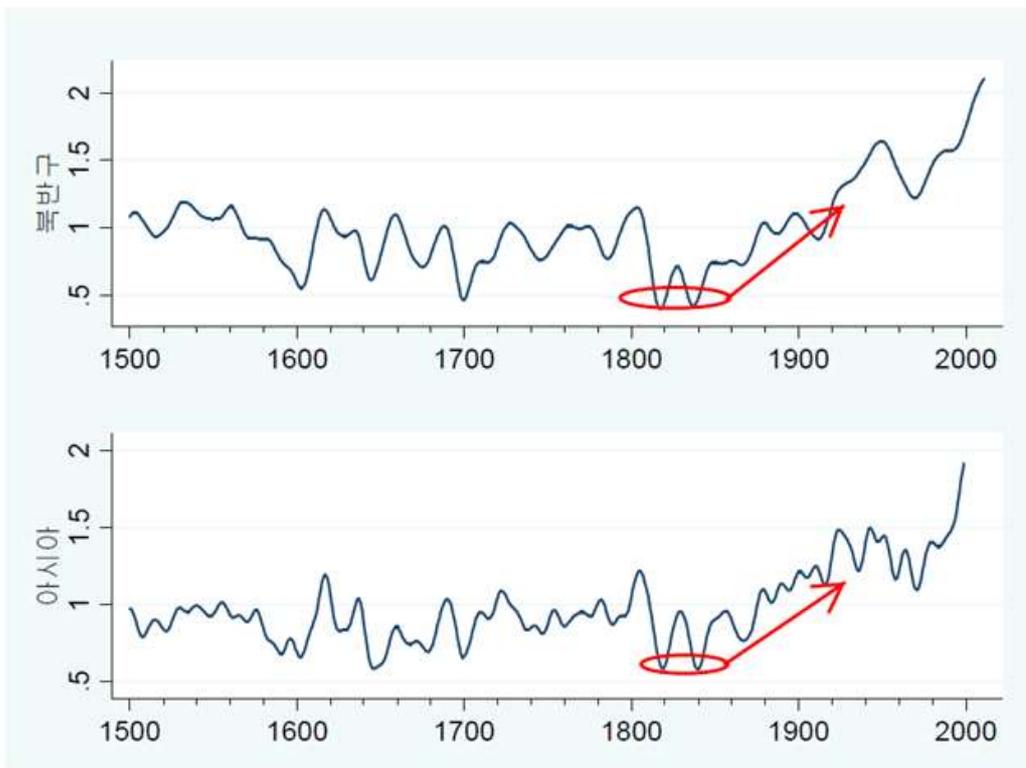


→행려병자의 신장은 개항 이전에 이미 증가하고 있었다.

5. 요약

- 내재적 발전론의 핵심은 전통(전근대)과 근대와의 연속성을 강조. 근대경제성장에서 전통의 역할(기여도)을 강조.
- 이 점에서 자본주의 맹아론과 시대구분론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면, 필자의 조선사 인식과 이른바 ‘내재적 발전론’에서 보는 조선사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.
- 필자와 내재적 발전론자간의 남은 차이점은 ‘19세기 위기’ 여부인데, 19세기 정체 또는 위기론은 실증적 근거가 튼튼하지 않다.
- 평자는 ‘19세기 위기’는 19세기 초에 찾아왔으며, 그 배경은 ‘이상저온현상’ 즉 人災가 아니라 自然災害라고 본다. 그리고 19세기 초 위기는 그 이후 점차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소되었다(그림 참조).

그림 12 북반구, 아시아, ~~중국~~의 기온 변화



- 주: 1. 북반구는 5-8월 평균기온, 아시아는 6-7월 평균기온, ~~중국은 년평균~~.
 2. 기온은 1600-2000년 평균을 1로 표준화.
 3. 단위는 북반구, 아시아는 섭씨, ~~중국은 sigma unit~~.
 4. 북반구는 anomaly smoothed 20 year spline, 중국은 10년 단위로 표기.
 자료: 북반구는 Wilson et.al(2016), 아시아와 중국은 각각 Shi et al(2015) Yang(2002).